

“풍성한 삶을 위하여”

(요한복음 10:9-10; 잠언 28:25)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풍성한 삶에 대해서 들어 보셨는지요? 풍성한 삶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사시는지요? 요한복음 14 장 27 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두고 간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서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뜨거운 햇빛 아래서 뛰놀던 아들에게, “아들아, 아빠가 네 옆에 시원한 물 한 병 놓았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풍성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서는,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10 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개역개정에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오신 것 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더 넘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치게 받은 것을 가지고, 풍성함을 누리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풍성함이란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재물, 건강, 명예와 같은 것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미국에서 살지만, 그렇다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풍성함은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요 14:27)

여기서 풍성함이란, 주 안에서 얻어지는 “마음과 영혼의 평안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여유로워지고요, 담대해 집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마음과 영혼은 평안하고 참 여유롭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해서 남과 비교하면서 주눅들지 않으며, 없다하여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때때로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도 마음과 영혼은 평안합니다. 어떤 두려움 대신에, 오히려 감사하고 평안합니다. 그러다 보면 건강이 회복되는 기적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을 열심히 할 때면 육신은 몹시 피곤하고 지칩니다. 하지만,

마음과 영혼은 다릅니다. 그 복잡한 일 중에도, 마음 깊은 곳에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여전히 있습니다. 또한, 삶의 큰 풍파를 만날 수 있죠. 그때에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거나,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 버렸으면, 사실을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고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주님은 바로 이런 풍성함을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 장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 중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두려워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과 영혼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았습시다만, 그 중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두 사람을 예로 들면,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시편 23 편을 보면, 그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참 풍성한 삶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 말씀대로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닥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현실속 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조급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는 부족할 게 없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라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임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임종을 하면서 팔을 높이 들고 기쁨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풍성함을 주실 것입니다. 혹,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내 영혼이 곤고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주님은 내 마음과 영혼에 풍성함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속의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로마서 8:28 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우리가 압니다!”라는 표현은,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확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선 자기를 위하여 모든 일을, 힘든 일/고난/슬픈 일까지도,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어떤 상황속에서도, 그를 풍성한 삶을 살게 했던 겁니다.

그는, 복음전도자로서, 참으로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어야 했고, 너무도 억울하게 당해야만 했던 일들이 여러 번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선 모든 일을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좋을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는 널 뒤통 up&down 이 많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날아간 듯합니다.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고백했던 믿음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선 모든 일을,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운 일까지도, 서로 협력해서 마침내 선을 이루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과 영혼에 풍성함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인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신앙 생활한다 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 본다면 결론이 “아, 믿음의 문제였구나”라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믿음이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종교적/제의적 언어로만 남아 있게 된 것은 아닐까요? 히브리서 11 장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는데, 믿음이 있다는 증거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말처럼,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할 때에, 믿음의 증거를 보이질 못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잠시 위로만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그 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남은 시간들 동안,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속회자료]

찬 송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569 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대표기도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말씀읽기 요한복음 10:9-10, 잠언 28:25 절을 읽습니다.

말씀묵상 본문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10 분)

말씀요약 웹사이트에 있는 말씀 요약을 읽습니다. (10 분)

말씀나눔 한 질문에 대해 15 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간이 90 분 이내)

1. 주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의 삶이 풍성한 삶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당신의 삶을 솔직히 평가한다면 어떠한가요?
2. 당신을 풍성한 삶으로, 평안함으로 이끌어주는(이끌어 줄) 성경구절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유도 말씀해 보세요. *성경구절을 외우지 못해도 좋습니다.
3. 결국 믿음이 문제입니다.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신다면, 당신은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보기도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찬 송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620 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기도문